

여수 경도개발 미래에셋 일가 배만 불리나

관광개발사업 주체 YKD 논란
박현주 회장 등 친족 지분 91.8%
민병대 도의원 “랜드마크는 뒷전”

전남도 개정 이래 최대 관광투자 프로젝트인 여수 경도 개발사업이 투자자인 미래에셋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6일 열린 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도 개발을 위해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난 2016년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라는 개발회사를 설립했다”면서 “YKD 지분형태를 보면 미래에셋건설링주이 50%, 싱가포르 회사로 알려진 기업이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정부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미래에셋건설링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48.63%, 부인이 10.24%, 두 명의 박회장 자녀가 각각 8.19%의 지분을 갖고 있고, 박회장의 4촌 내 혈족 3명이 5.69%, 1.37%,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4촌 이내 친족지분이 91.86%에 달하는 사실상 가족기업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싱가포르 기업도 건설링 회사로만 알려져 있을 뿐 YKD 설립 당시 비공개 협약으로 인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싱가포르 기업은 펀딩사가 확실한 만큼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먹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KD 지분을 소유한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면 미래에셋건설링이 경도를 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YKD가 이익을 내면 박현주 회장 일가 가족회사인 미래에셋건설링의 이익만 그만큼 늘어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미래에셋건설링이 소유한 경도 구역 내에서 통행 제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애초 계획한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 개발은 뒷전인 채 레지던스 건립

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도 개발을 두고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셋은 세계적 금융회사로 1년에 2조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미래에셋 회장은 경도 개발로 회사 명예에 금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미래에셋이 입는 손해가 더 크다고 이야기 했다”며 “레지던스를 먼저 시작해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보지만, 필요하면 도지사가 직접 지도 단속을 통해 서라도 아파트형으로 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랜드마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은 경도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에는 YKD(37.4%), 전남개발공사(4.7%), 현대건설(14.7%), 비에스글로벌(1.3%), 펀드(33.9%)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익배분 비율은 YKD(59.1%), 전남개발공사(7.0%), 현대건설(8.4%), 비에스글로벌(0.9%), 펀드(20.1%) 등이다. /정근산 기자



“보건의료 인력 충원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생훈 기자

혈세 먹는 전남도립대…지역 인재양성 ‘글썸요’

한해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전남도립대의 운영 난맥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은 수년째 60%대에 허덕이고 있으며 교원들의 수준도 제자리 걸음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 3년간 100여억원의 재정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대학 정보 공식 공식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남도립대의 2018년도 졸업생 취업률은 62.2%에 그쳤다.

2019년에는 66.2%, 2020년 68.1%로 매년 취업률이 60%대에 머물렀다. 재학생 10명중 1명 이상은 재학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재적학생 2,017명 중 256명(12.7%)이 미복학, 자퇴, 미등록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2019년에는 1,907명 중 256명(13.4%), 지난해에는 1,884명 중 234명(12.9%)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다.

열악한 교육여건은 전임교원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임교원 수는 44명으로, 이는 학생 정원 기준 교원법정정원 73명의 60.27%에 불과했다.

2020년 44명(61.1%), 2019년 45명(62.5%)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학점은 390.5점으로 전체의 36.1%에 그쳤으며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63.9%를 차지했다.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또한 저조해 지난해 44명의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 국내발간 학술지, 국제 학술지 등 논문실적은 총 6.4건에 그쳤다.

앞선데 달진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국비사업이 3년간 제한받게 됐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남도립대는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해 37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학교 이미지 실추로 인해 발생하는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대학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립대가 지역 젊은 인재 양성 산실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 신설 등 대대적인 개혁과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호 전남도립대총장은 “이번 교육부 평가와 별개로 학과 분석 등을 통해 입학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없다”며 “재정 지원 방안이나 사업 시행 등에 대해 도립대와 긴밀히 협의를 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운영비를 포함한 전남도립대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국비 35억 원, 도비 53억 원 등 총 88억 원이다. /길용현 기자

졸업생 취업률 60%…중도 이탈 10% 넘어
재정지원 탈락 경쟁력 저하 우려 대책 시급

순천·광양 학교 코로나 집단감염

학생·교직원 46명 확진 비상

전남 동부지역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이 비상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순천·광양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45명, 교직원 1명 등 총 4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순천지역 중학교 학생 3명이 감염돼 학생 796명과 교직원 80명 등 876명 전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후 순천지역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346명 전수검사를 했으나 다행히 추가 확진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광양지역 집단감염이다. 지난 4일 광양지역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교 학생 450명과 교직원 58명 등 50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일 2명, 6일 20명 등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감염은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이후 전남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순천과 광양지역 모두 최초 감염자가 ‘감염원 불명’이라는 점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

이에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광양시보건소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고3을 제외한 광양지역 모든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가족들에 대해 이동중지를 요청했다.

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긴급대응반을 꾸려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광양 지역의 경우 확진자 가족과 학원 수강생, 지역 전체 학교로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과 기숙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생활지도는 한층 강화된다.

광양지역 학원연합회측도 6일부터 1주일 동안 전면 휴원하고, 추가 감염 상황에 따라 휴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어렵게 되찾은 전면등교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나라 기자

공영자전거 ‘타랑개’ 애물단지? 6면

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올랐다 19면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만나요!



2021 전남 저작권의 날

전남지역 중소기업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애로사항 해결하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전남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함께 해주세요!

저작권 등록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

- ✓ **저작권 상담** 실무상담,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지원
- ✓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 ✓ **저작권 육성 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 **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퀴즈도 풀고 저작권도 배워요 EVENT TIME

10:00 ~ 17:00	스탬프 이벤트 아래 도장에 찍어주세요!
11:00 ~ 11:30	룰렛을 돌려라!
15:00 ~ 15:30	
11:40 ~ 11:50	저작권 인식 개선 OX퀴즈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전남 저작권서비스센터

9. 9.목 - 9.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